

#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전환

## 1. 새천년개발목표(MDGs)

1990년대 선진국들은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글로벌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는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을 발표하여 21세기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개발목표를 제안했다.

OECD DAC의 글로벌 공동의 개발목표는 2001년 세계은행, IMF, UN, OECD와 일부 선진공여국이 모인 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MDGs 주요 목표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발전’ 또는 ‘인간개발’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되었다.

MDGs 수립 이후 공여국은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가했다. 또한 개도국은 MDGs 목표와 연계된 국가정책을 우선사항으로 수립했다.

## 2.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수립

이렇게 수립된 MDGs는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15년을 이끌어 왔다. 15년의 시한을 둔 MDGs가 2015년 종식되기 때문에, 이를 계승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가 수립되었다. 기존의 사회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개발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환경지속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평화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수립된 개발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명명되었다. SDGs는 2015년 9월 UN 총회의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총회 개발정상회의 결과문서인 ‘세계를 변화시키기: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되었다. 2030이 제시된 이유는 SDGs가 2016년을 시작으로 MDGs와 마찬가지로 15년의 과정을 통해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SDGs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은 기존의 ‘공여국-개도국 파트너십’을 ‘다자(multilateral)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으로 확대한다. 이는 평화와 안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여국과 개도국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자선단체,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 3. SDGs의 주요 내용

SDGs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서문에서 인간(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의 ‘Ps’를 5대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 인간(people)

- ▶ 모든 형태와 모든 수준에서의 빈곤과 기아의 종식
- ▶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건강한 환경에서의 잠재력 실현 보장

#### 환경(planet)

-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환경악화로부터의 보호를 통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지원

#### 번영(prosperity)

- ▶ 모든 인간의 번영과 성취하는 삶 보장
- ▶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하는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보장

#### 평화(peace)

- ▶ 공포와 폭력이 없는 평화적이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촉진
- ▶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없는 평화 성립도 불가능

#### 파트너십(partnership)

- ▶ 강화된 글로벌 연대 정신에 기반
- ▶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의 수요에 초점을 둠
- ▶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사람이 참여
- ▶ 활성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SDGs 선언문은 MDGs를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DGs를 통해 달성되지 못한 목표들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경제·사회·환경의 3대 측면을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선언문은 특히 극빈곤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가장 소외된 계층에도 적용될 수 있는” SDGs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한 SDGs 목표들이 극빈곤층과 취약계층 및 다양한 대중, 시민사회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토대로 수립되었다고 말한다.

국제사회는 15년 전 수립된 MDGs가 개도국 개발에 있어 많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아프리카나 소규모 도서 지역에 위치한 국가 및 최빈개도국과 내륙개도국 같은 개도국들은 그 발전 정도가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모성 보건과 신생아 및 아동 보건에 있어 아직도 MDGs는 달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SDGs는 MDGs의 미달성 분야를 시작으로 MDGs가 다루지 못했던 경제·환경·평화·안보의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목표를 중시하여 작성되었다.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는 SDGs가 국제법을 따라야 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상기하며, 동시에 SDGs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국내정책도 국제규범의 범주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취약국과 같이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경우 SDGs 이행에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DGs의 한계 중 하나는 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행의 수단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SDGs 수립 과정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이행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SDGs의 이행은 특히 ‘활성화된(revitalized)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 시민사회, UN의 기구들을 비롯하여 가능한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4. SDGs의 17개 목표

SDGs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5대 Ps(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 <참고문헌>

임소진.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SDGs).” *EDCF Issue Paper*, Vol. 4 No. 8. 2015.  
 김은미. “UN SDGs와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제5차 부산ODA포럼 발표문, 2015.

